

최민정 오늘 밤 8시29분 '3관왕 무대'



20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우승한 최민정이 결승선을 통과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女 3천m 계주 금... 1000m 1위로 예선통과 임효준도 男 500m·5000m 계주 출전 3관왕 도전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이 12년 만의 3관왕에 도전한다. 한국 여자 대표팀은 지난 20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4분07초361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최민정과 함께 심석희(한국체대), 김아랑(한국체대), 김예진(한국체대 입학예정)으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지난 소치 대회에 이어 올림픽 2연패에 성공했다. 또 이번 우승으로 한국은 여자 계주팀이

출전했던 앞선 7번의 올림픽에서 6개(1994년·1998년·2002년·2006년·2010년·2018년)의 금메달을 싹쓸이하게 됐다. 2010 밴쿠버 올림픽에서는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아쉬운 실격판정이 나오면서 금메달을 중국에 내줬었다. 한국의 우승 여부에 쏠렸던 시선은 이제 최민정에게 향한다. 최민정은 이날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지난 1500m에 이어 한국 첫 2관왕에 등극했다. 앞선 500m 실격의 아쉬움을 털고 연말이 금

메달을 목에 건 최민정은 여자 1000m를 끝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레이스를 끝낸다. 최민정은 계주 결승에 앞서 치러진 1000m 예선에서 손쉽게 1위로 들어오면서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줬다. 최민정이 이번 없이 결승에 오른다면 22일 오후 8시 29분이 '3관왕'을 위한 무대가 된다. 이날 선두로 결승선에 들어오면 최민정은 지난 2006년 토리노 올림픽 진선유에 이어 12년 만에 3관왕에 오르게 된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또 한 명의 3관왕을 기대하고 있다. 임효준(한국체대) 역시 '3관왕' 후보다. 1000m 결승에서 팀 동료 서아라(화성시청)와 충돌해 넘어지면서 메달 추가에

는 실패했지만, 임효준은 남자 1500m에서 한국의 첫 금메달 소식을 전한 '금메달리스트'다. 임효준의 D-데이 역시 22일이다. 금메달 두 개를 확보해놓은 최민정과 비교하면 험난한 일정이다. 그는 지난 20일 서아라, 황대현(부흥고)와 함께 500m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임효준이 3관왕으로 가기 위해서는 22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500m 준준결승을 시작으로, 500m 결승과 남자 계주까지 다 소화해야 한다. 500m 결승에 안착하면 오후 8시 15분 두 번째 금메달을 위한 도전을 하게 된다.

그리고 오후 9시 남자 계주 금메달을 위해 다시 출발선에 서야 한다. 두 번의 결승에서 모두 1위에 오르면 임효준 역시 2006년 토리노 대회 안현수에 이어 3관왕이 된다. 토리노 대회는 임효준의 금메달의 꿈이 시작된 각별한 의미가 있는 대회다. 토리노 대회를 통해 쇼트트랙 선수의 꿈을 키워준 임효준이 자신의 우상 안현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실격과 충돌이라는 불운을 뒤로하고 최민정·임효준이 '동반 3관왕'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주목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팀=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백지선 감독 머리 감독

4년 후 베이징까지 남·녀 아이스하키 백지선·머리 감독 계약 연장 추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남녀 대표팀의 사령탑인 백지선(51·영어명 짐팩), 새리 머리(30·캐나다) 감독과 계약 연장을 추진한다. 협회 관계자는 21일 "백 감독과 머리 감독에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까지 지휘봉을 맡긴다는 계약의 기본적인 구상"이라고 소개했다. 2014년 부임한 백 감독과 머리 감독은 올해 8월에 계약이 만료된다. 일단 정몽원 협회장(한라그룹 회장)이 자신의 임기(2020년)까지 같이 하자고 구두로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개최국 자동 출전권을 확보해 사상 최초로 본선 무대에 오른 한국 남녀 아이스하키는 각각 4전 전패, 5전 전패를 당해 최하위로 대회를 마쳤다. 하지만 남자 대표팀은 체코(1-2), 스위스(0-8), 캐나다(0-4), 핀란드(2-5) 등 세계 1~7위의 강팀들을 상대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쳤다. 특히 핀란드전이 백미였다. 한국은 2피리어드 초반 0-3까지 뒤졌으나 포가치프스키가 끝까지 싸우며 브락 라던스키, 안진휘가 잇따라 만회 골을 터트렸다. 여자 대표팀은 남북 단일팀이라는 돌발 변수로 조직력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았다. 대회 초반에는 힘없이 무너졌지만 갈수록 경기력이 살아났다. 14일 일본전에서 랜디 히수 그리핀이 올림픽 첫 골을 터트렸고, 20일 스웨덴전에서 안현수가 골 맛을 보며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아이스하키협회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자격 진출을 노린다. 백 감독과 머리 감독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본다. /연합뉴스

올림픽 '효자 중 효자' 쇼트트랙 통산 24개째 금

양궁 23개·태권도 12개...레슬링·유도 11개 뒤이어

2018 평창 메달리스트-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심석희	최민정	김예진	김아랑	이유빈
-----	-----	-----	-----	-----

김아랑 심석희 최민정 김예진 이유빈

- 출생 1995. 8.22 1997. 1.30 1998. 9. 9 1999. 12.20 2001. 4.23
- 신체 172cm·60kg 175cm·61kg 164cm·54kg 163cm·52kg 162cm·53kg
- 소속 한국체육대 갤럭시아SM 성남시청 평촌고등학교 서현고등학교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

- 1994 제17회 노르웨이 알레한데르 올림픽 금메달
- 1998 제18회 일본 나가노 올림픽 금메달
- 2002 제19회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 금메달
- 2006 제20회 이탈리아 토리노 올림픽 금메달
- 2010 제21회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 8위
- 2014 제22회 러시아 소치 올림픽 금메달
- 2018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

자료/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0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우승한 최민정, 심석희, 김아랑, 김예진, 이유빈 등 한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에 역대 가장 많은 금메달을 안긴 '효자종목'으로 올라섰다. 한국 쇼트트랙은 20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에 따라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통산 24개째 금메달을 수확했다. 쇼트트랙은 양궁이 역대 하계올림픽에서 벌어들인 23개의 금메달을 추월했다.

쇼트트랙과 양궁을 제외하면 역대 동계 올림픽에서 다음으로 많은 금메달을 따낸 종목은 태권도로 12개다. 유도·레슬링이 나란히 11개로 뒤를 잇는다. 쇼트트랙·양궁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특정 종목의 '지배자'를 거론할 때의인에서도 꼭 언급되곤 하는 쇼트트랙과 양궁은 각각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효자종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쇼트트랙은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이래 21일 현재까지 나온 53개의 금메달 가운데 24개를 한국이 가져갔다. 한국이 획득한 총 메달 수는 46개다. 양궁은 1972년 뮌헨 대회에서 근대 양궁이 시작된 이후 나온 40개의 금메달 중 23개가 한국의 차지로 돌아갔다. 한국은 총 39개의 메달을 따냈다. 화려한 성적만큼이나 결출한 '레전드'

들도 두 종목에서 여럿 배출돼 한국 스포츠의 '영웅'으로 남았다. 쇼트트랙에서는 김기훈·김동성·안현수, 전이경·진선유·심석희 등으로 이어진 스타 계보를 평창올림픽의 임효준(한국체대)·최민정(성남시청)이 계승할 것이다. 양궁에서도 '전설의 신궁' 김수녕을 필두로 박성현, 기보배, 윤미진, 임동현 등의 스타들이 하계올림픽을 수놓은 별이 됐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한 시

기와 열리는 세부종목 숫자에 차이가 있는 만큼 두 종목이 따낸 메달 숫자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양궁의 세부종목 숫자가 약간 늘어나고, 대회마다 따내는 메달 숫자 등이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두 종목은 동·하계올림픽이 열리는 2년마다 역대 최다 '메달밭' 자리를 놓고 추월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두 종목서 메달 4

네덜란드 테르모르스 '빙속 3관왕' 이어 쇼트트랙 계주 동메달



네덜란드 스케이터 요린 테르모르스(사진)가 동계올림픽 한 대회 두 개의 서로 다른 종목에서 모두 메달을 딴 최초의 여자 선수가 됐다. 테르모르스는 지난 20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팀 동료들과 함께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이탈리아가 은메달을 차지하고, 결승에 오른 중국과 캐나다가 모두 실격되면서 파이널 B에서 1등을 한 네덜란드에 극적으로 돌아간 동메달이었다. 고다이라 나오(일본)를 제치고 금메달을 거머쥔 테르모르스의 이번 대회 두 번째 메달이다. '부임'인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소치 올림픽 2관왕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3개의 금메달을 따냈던 쇼트트랙 메달은 이번 계주 동메달이 처음이다. 과거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노르딕 복합 등에서 동시에 메달을 딴 남자 선수들이 있었으나 여자 선수 중엔 테르모르스가 처음이다. 테르모르스는 이번 대회에서 두 개의 신기록도 만들었다. 여자 1000m에서 1분13초56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던 그는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파이널 B에서는 4분3초471의 세계 신기록을 합작했다. /연합뉴스